

「케블러」가 진즈(jeans)에서 각광 받아

일본에서는 고강력, 고탄성율로 알려진 하이테크 섬유인 파라케 아라미드 섬유 「케블러」가 면과의 교직으로 진즈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케블러」는 미국의 듀퐁(Dupont)이 1974년에 개발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 패드나 클러치용 마찰재로 사용되는 펄프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섬유는 91년부터 도레(東レ) 듀퐁 합작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주 용도는 타이어 · 코드, 고무보강, 콘크리트 보강, 방호의료(防護衣料), 광 파이버 등이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프린트 배선기판용 등이 늘었으며, 생산량의 태반이 「케블러」의 기능성을 살린 산업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케블러」를 사용한 바이커(biker)용 진즈의 위사에는 심에 「케블러」와 표면에 면을 사용한 코어사가 사용되고 있으며, 안감에도 같은 코어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케블러」의 혼용율은 9%에 불과하다.